<2015년 6월 21일 주일말씀>

모르면 사탄도 인사탄도 괴롭히고,
자기가 자기에게 고통을 준다

본 문 마가복음 5장 36절, 누가복음 8장 50절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문제를 해결하는 답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근본의 문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푸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릇된 생각, 그릇된 인식. 이 모든 것이 풀어지고 사탄을 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제대로 알면 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인식, 그릇된 인식, 영적인 문제, 근본의 문제가 풀려야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다음단계로 가면서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특히 주일말씀은 그 한주간에 핵을 잡아주는 말씀으로써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일주일을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가면서 차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사탄을 멸하는 기도를 본격적으로, 전적으로, 강력히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 기도에 대한 말씀과 한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곧 휴거에 대한 비밀의 말씀입니다.

◎ 지난 주일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 말씀과 한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곧 <휴거>에 대한 비밀의 말씀입니다.

◎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전체 말씀의 핵심이 나옵니다.

<말씀 시작> 설교 전체의 맥을 잡아 주는 중요 부분

우리는 성약 섭리역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성약 섭리역사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곧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완성해서 끝내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가정 단위'로 이루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 곧 신부'로 변화시키고 완성시켜서 삼위일체와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민족적, 세계적, 천주적인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 역사는 이 목적을 이루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섭리역사는 하나님의 이 창조목적을 이루었습니다.

2015년 3월 16일을 맞아서 <휴거>로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완성했습니다.

- 구원역사 6000년 만에
- 성약 섭리역사를 시작한 지 37년 만에 그리고
- 시대 구원자가 태어난 지 70년 만에 이룬 역사입니다. 그것도 시대적인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루었고, 섭리역사가 가장 극적으로 어려웠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지 못하고 펜끝으로 말씀을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성령받아서 2009년에서 2014년까지 극적으로는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었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는데 있어서 세상 사람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맞습니까.

섭리사가 가장 극적으로 어려웠을 때 성경의 인봉은 계속해서 전해졌고 성령의 역사는 불같이 일어났고 깨닫고 회복하는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자>는 이 땅에 계시면서 '구원자의 육신', 곧 '시대 대표'를 통해 '휴거와 재림의 비밀'을 밝히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함으로 우리의 영을 '신부'로 '휴거의 영'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말씀은 거짓 없이 '펜 끝'으로 전해지며 오직 하나님과 성자께 나온 말씀임을 나타냈습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상징체', 곧 '신부 대표'를 통해서 펜 끝으로 전해진 말씀을 부인할 수 없도록 성령으로 외치게 하시며 우리의 영을 '휴거의 영'으로 단장시키셨습니다.

그로 인해 2015년 3월 16일, 성자는 떠나시면서 '휴거된 영들'을 데리고 <천국 황금성>에 오르셨고, 바로 그 때부터 '휴거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온 역사, 펜 끝으로 정확하게 전해진 역사들이 역사속에 증거물로 남아있고, 그동안 행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증거와 함께 역사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천지가 변해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동안 해온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이뤄놓은 역사입니다. 휴거의 문이 이제부터 열려있습니다. 언제까지 열려있느냐 하면, '시대 구원자의 육신, 바로 보낸자의 육신이 살아 있을 때'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 후에는 휴거의 문은 닫힙니다.

바로 이때를 <휴거 기간> 이라고 합니다.

시대 구원자, 바로 보낸자의 육신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휴거>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거>라는 말은 삼위일체와 같이 산다는 말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가 그 보낸자의 육신 쓰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휴거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보낸자의 육신이 죽으면, 남은 성약 1000년의 역사 기간이 남아있죠. 이 기간은 <성약 신부급 구원역사>만 진행이 됩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 이 때 <휴거기간>

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휴거의 문지 열렸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휴거된 자들>은
휴거 700선까지 도전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행운아죠. 핵심 경기 승리하고, 휴거되었고, 남은 휴거를 이루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역시 어서 휴거 300선 찍고 그리고 그 다음에 700선까지 오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어서 '제2의 복직된 하와들'로서 <제2의 시대 사도>가 되고 <제2의 성령의 몸>이 되어서 담대히 '시대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들도 휴거시키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일 이거 세 가지입니다.
①휴거된 자도 700선, ②안 된 자도 700선, ③'제2의 사도, 제2의 성령의 몸'이 되어서 저들도 휴거시키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 <시대 대표>와 <신부 대표>가 <시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불같이 일으켜서 휴거시켰으니,
섭리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여서 승리한 역사'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져야만 돌풍치는 역사를 일으킬수가 있습니다. 고로 핵심 경기는 끝났다. 성경은 이미 이루었다. 핵심은 이기고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갈 때까지 강사들,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고로 이제는 '개인 환난'을 이기고 행하는 만큼 '제2의 승리, 제3의 승리, 제4의 승리'도 모두가 우리들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 섭리역사의 영원한 기쁨과 희망은 <휴거>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 역사가 <휴거>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거>외에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그리고 우리의 자부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휴거>를 이루었고, <창조 목적>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탄과 악한 자들은 이 <남은 휴거>를 방해합니다. <휴거>를 이론으로만 인식하게 만들고, 혹은 <휴거>는 없다고 부인하게 만들고, <휴거>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휴거>를 귀히 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혹은 <휴거>를 포기하게 만들고. 사탄이 악한 자들이 쓰고 행하는 일입니다.
시대 대표인 '선생'을 건드렸지만 선생은 이겼습니다.
신부 대표인 '하와 표상'도 건드렸지만 이겼습니다.
섭리사의 영원한 희망인 '휴거'도 건드립니다.
이제 섭리사의 영원한 희망이고, 영원한 행복인 '휴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남은 휴거'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 이제 이<남은 때>를 놓고서 '사탄과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사탄은 항상 '악한 자들'을 쓰고서 '악한 말'로 우리들을 쏩니다. 가만히 있으면 100% 쏘입니다.
사랑해 줘도 소용없고, 잘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주는 것으로, 잘해주는 것으로 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악한 말로 계속해서 우리의 휴거를 방해하게 됩니다. 휴거를 못 믿게 만듭니다.
우리가 <휴거>로 <창조 목적>을 이루어서 승리하니까, 휴거가 핵이죠. 이거를 확신하면 게임은 끝난거에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서 돌풍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부심이 넘쳐나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악한 자들이 이제는 휴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쓰고 역사합니다. 믿게끔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자들은 이 '남아 있는 때'인 휴거 700선으로 높이는 일과 저마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이 시대 사람들을 휴거시키는 일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탄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개인 환난'이 오게 됩니다. 주변에 힘든 사람이 요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딱 있습니다. 휴거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휴거300선을 이루었으니 만족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 유형이 모든 문제의 이유입니다. 그러니 곤고해요. 힘들어요. 다시 육적문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고, 돌풍치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점점 후퇴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일이죠.
<핵심 승리>를 했으니 제2, 3, 4의 승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탄과 인사탄을 물리치지 못하면 거기서 길이 막히게 됩니다. 고로 성자 떠나실 때 말씀하셨죠. "성자 떠났으니 새롭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길이 막힌다."
★ 사탄과 악을 없애는 방법은 오직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매달리고 부탁하고 간구하며 그 일을 해결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과 악을 없애는 방법은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릇되게 인식한 것, 잘못 인식한 것을 새롭게 제대로 알게할 때 사탄은 멸해지게 됩니다.
<의인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고로 <의인이 하는 기도와 의인이 하는 말씀>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 말에 힘 있게 역사하십니다.
★ 고로 이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강력한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탄과 악을 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섭리 전체는 <기도>해야 됩니다.

악을 멸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까지 기도다.했습니다. 이 기도가 될 때까지 올해는 1차, 2차, 3차, 4차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올해를 승리하는 역사로 계속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자기 문제를 꽉 쥐고 있는 사탄을 멸하고, 자기 생각을 주관하는 사탄을 멸하고,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해서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사탄을 멸하고, 생명을 꽉 쥐고 자기것이라고 하면서 안 놔주는 사탄을 멸하고,
휴거에 대해서 부인하며 방해하는 사탄을 멸하고,
앞으로의 승리를 방해하는 사탄을 멸하고, 형제끼리의 화평을 자꾸 깨뜨리는 사탄을 멸해야 됩니다.
전체가 깊이, 간절히, 강력하게, 본격적으로, 전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 두 번째. 기도와 강력한 말씀다음으로 두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힘 있게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휴거된 자들은 <휴거의 역사>를 시인해야 됩니다. 매일 휴거를 시인해야 됩니다. 휴거로 창조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아멘! <휴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그 힘을 가지고 남은 단계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거 700선까지 도전하게 되겠죠.
아직 휴거되지 못한 자들 역시 '휴거된거 뭐 그전과 이전이 달라? 별로 다르지 않지 않아?' 아직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나, 휴거된 자들이나 <휴거 역사>를 시인하지 못하면 곤고함이 오게 됩니다. <휴거의 역사>를 매일 시인해야 되요. 그리고 <휴거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음 차원으로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휴거>가 '이론'으로만 끝난다면 믿어지지 않고, 즉시 사탄이 침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에요. '기도해서 되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소용없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때 즉시 사탄이 침범합니다. 말씀의 확신, 천지가 변해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자기를 쥐고 있는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하면서 계속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섭리역사의 영원한 기쁨과 희망은 <휴거> 외에는 없습니다. <영>이 휴거돼야만
그 <육>도 '휴거의 육'이 되어서 '휴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 것도 없이 사는 것과, 그냥 희망만 가지고 도전하는 것과 어느정도 하나 핵심은 승리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으로 도전하는 것은 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015년 3월 16일 이후부터는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핵심 힘, 핵심의 승리 이 목적을 두고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행할 때, 즉시 사탄이 멸해집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다. 아멘.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제가 기도하고 행하겠습니다. 해야됩니다. 그동안 성자께서 '선생'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육을 통해서 자기 영을 변화시켜서 '휴거의 영'이 됐다면 휴거 300선을 기준으로 성자가 승천하실 때 함께 지상을 떠나 지금 자신의 영은 <천국 황금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할 때 느낌이 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잠언이 하나 있어요. '자기의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계시도 감동도 느낌도 잘못된 인식으로만 옵니다.'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딱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믿어지지 않고 문제에 연결되어 보입니다.'
휴거된 영이 황금성에서 잔치하고 있는데도 곤고합니다. 자기 영이 휴거됐는지 안 됐는지 진짜 궁금하죠.
꼭 기도해 보라고 했는데도 안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계속 나왔습니다. 기도하라. 깊이 기도하라. 꼭 기도해보라고 했는데도 아예 안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첫째, 관심이 없구요. 둘째, 약간 무서워서. 혹시 안 됐으면 어떻게하지. 휴거됐는지 꿈에 보여달라고 했는데.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휴거됐어도 <휴거>에대한 확신이 없으니 곤고하고, 휴거되지 않았어도 <휴거>를 귀히 보지 않으니 섭리사를 살면서도 곤고함을 면치 못하고 계속 악한 자들에게 쏘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 기성인들이나 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뭐 별다른게 있나, 그냥 그렇지.' 그 인식, 그 생각, 그 잘못된 그릇된 생각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그 틈을 타고 침범하고 역사를 합니다. 지금 가장 사탄이 크게 침범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휴거에 대한 확신입니다. 휴거를 가지고 틈을 타고 있어요. 휴거 하나만 무너뜨리면 섭리역사에 대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계속 타고들어와요. '휴거 뭐 별거있나.' 정말 휴거되고 싶었으나 휴거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다보니 그 틈을 타고 계속 들어와요. 그러다가 여러분을 결국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휴거된 영은 달라요. 다릅니다. 7배나 강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 누가 좀 힘들게 했다고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길 수 있는 정도는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 휴거 한 600.700정도는 가야 그때부터 곤고함이 조금씩 몰려와야죠. 물론 생활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느정도의 형제를 이

해하고 용서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 생각해야 되요. '난 휴거된 자다.' 휴거됐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본인에 생각이나 삶이 달라져요. 행동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난 일단 휴거됐으니까 기도도 좀 불같이 해야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휴거 300정도면 의인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신부 아닙니까. 천국 황금성을 보장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도, 행동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섭리역사의 영원한 기쁨과 희망은 <휴거> 외에는 없다.

<휴거>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었으니, 승리한 섭리역사다. 고로 우리는 '휴거의 기쁨'을 누리고 살면서, 날마다 더 차원을 높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보람이 넘치고 기쁨이 차고 넘치며, 그 힘으로 담대히 시대 복음을 전하면서 돌풍 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날마다 사탄을 멸하면서 제2, 제3의 승리를 이끌어 나가게 되겠죠. 꼭 <휴거>를 확신해야 됩니다. 휴거를 믿어야 됩니다. 이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다 완성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창조역사, 그리고 구원역사의 시작은 휴거로 다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휴거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며, 행하는만큼 그대로 이루어지며,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증거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성령께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영이 휴거됐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인식을 '아, 나는 도저히 휴거돼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날마다 새벽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간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을 통해서 '나는 잘 모르니까 가르쳐줘.' 가르쳐달라고 자꾸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영이 혼을 통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영이 혼을 통해 자신의 무지한 육에게 말하기를 '성자와 구원자가 총 집중해서 도와주셔서 너 휴거됐다. 이제부터 나머지는 니가 해야 돼. 내 육아. 너 참 무지하다. 너 이 귀한 때에 뭐하는 거니! 내가 휴거됐지만 너 이 정도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된다. 700선까지 올라가야 완전한 만족이야. 너가 휴거를 확신하지 못하니, 그리고 더 행하지 못하니 자꾸 사탄이 틈을 타고 낙심하게하고 차원을 높이지 못하는 거야. 내가 애간장이 탄다. 왜? 결국 너는 죽고 나는 영원히 살지 않냐.' 하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인식을 그렇게 했지만, 계속해서 울면서 간구하며 핵심이죠. 앞으로의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줄 핵심, 휴거의 대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고 간구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영을 통해 답을 주신 것입니다.

<성자와 구원자>는 '여러분의 구원과 휴거'를 놓고 90% 이상 책임을 지고 행했습니다. 성령님도 역사하셨습니다. 결국 <휴거 300선>까지는 거의다 책임을지고 해 주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휴거에 대해 아예 인식을 안 하고 말만 휴거 인식하지 않은 이상.

휴거 말씀을 믿고, 구원자를 믿고, 열심히 성령역사에 참여하고 불받기 위해 노력하고 간구하며, 열심히 낙심하면서도 노력한 여러분들은 휴거 180선 정도는 됐다는 것입니다. <휴거 180선 이상>만 돼도 자기가 행한 것은 부족하죠. 300선까지는 120선이 남아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이죠. 그러나 여기서 성자와 구원자가 성령님과 함께 책임을 지고 나머지를 해 주어서<휴거 300선>까지 오르게 해 주었습니다. 휴거에 확신을 두고 기도하며 이 휴거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유를 들어줄게요. 마치 어떠냐하면, 여러분이 처음 전도됐을 때 3년 정도는 관리를 해줍니다. 알아야만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 말씀을 가르쳐 주고, 돕고, 관리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휴거 300선까지 끌려올리기 위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동안 구원자가 성자가 극적으로 도우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의 관리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잘 몰라도, 계속 말씀해주고, 값없이 성령을 부어주면서 역사를 해주었습니다.

<시대>를 알고, <말씀>을 알고, <성자와 구원자>를 알면, 그 단계는 <구원 300선 위치>와 같습니다. 그 후에는 성자도, 구원자도, 관리자도 더 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본인이 말씀 듣고 행하고, 교회에 다니며 할 일을 하고, 전도도 하고, 삼위일체와 주를 사랑하고, 시인하고, 고할 것을 고하고, 형제와 화평하게 하고, 주와 하나 되어서 구원을 강하게 확신하면서 굳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약 섭리역사> ,<신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질책도 받고, 교육도 받고, 시대 복음을 전하기도하고 , 지도자가 되어서 생명을 이끌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서면 <구원 600선 위치>가 됩니다.

이렇게 <휴거 300선>위치까지는 성자와 구원자가 거의 책임을 지고 이루게 해 줍니다. 모르면 가르쳐주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끌어오고, 밑으로 떨어져있으면 끌려 올려주면서 3년은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책임자인 선생>은 2009년부터 '재림과 휴거'를 본격적으로 선포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은

<휴거에 대한 말씀>을 전적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휴거되는지 다~ 가르쳐 주면서 행하게 해 주었습니다. 해온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 온 것을 증거하면 더 강력하게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성령의 역사>를 받든지, 아니받는지, 믿든지, 욕을 하든지 끝까지 뜨겁게 이끌어 주면서 깨닫게 해 주고 여러분을 단장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가뭄의 콩나듯 한번씩 가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극적으로 모두 휴거되도록 길러 왔습니다. 마치 처음 전도됐을 때부터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수료하게 하고 관리해 주듯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3월 16일에 성자가 떠나실 때
'휴거된 영'으로 단장하여서 예비하고 있는 영들을
<휴거 300선>을 기준으로 해서 모두 휴거시켜서 <천국 황금성>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휴거 책임자>인 '성자와 분체'가
책임을 지고 <휴거 300선>까지 끌어 주었습니다.

<전능하신 성자>를 절대 믿고, <분체>를 '성자의 육, 구원자, 자신을 휴거시킬 자'로 절대 믿고 그를 시인하며 그와 일체 되고, <시대 말씀>을 절대 믿고 힘들지만 그 말씀을 행하며,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고, 삼위일체와 주를 절대 <사랑>한 자들을 휴거시켰습니다.
부족한 게 뭐죠. 회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2014년 연말에는 모두에게 '용서의 선물'을 주면서 깨끗하게 해 주고 휴거되게 해 주었습니다.
거의 다 '답'을 3년동안 쏟아부어 주면서 그 말에 "아멘!" 하면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도 이마저도 안 한 자들은 휴거되지 못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들음으로부터 온다.'
구원자를 안 자들은 <구원의 주관권>에 있듯이,
휴거를 믿고 시인한 자들은 모두 <휴거 300선>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닌 '실제'입니다.
★ 그러나 본인이 느껴야만 실감이 나고, 본인이 느껴야만 더욱 더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육>이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안 해도 <영>은 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육신이 곤고한 삶을 면치 못하고, 더 차원을 못 높이니까 이 영은 계속 300선에만 머물러 있어요. 영의 영원한 한이 됩니다.
휴거에 대한 확신, 휴거에 대한 확인을 못하니까 자기가 휴거 됐다는 것을 모르니까 곤고합니다. 신앙이 약해집니다. 사탄이 틈을 타죠. 개인 환난이 물밀듯 밀려오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로 힘이 안 나죠. 다음 단계인 <400선,3500선>으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이며,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며 남은 한 때는 승리하지 못하게 이것이라도 막아보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 표상을 선포했죠. 말씀을. 왜 선포했죠? 그와같이 제 2의 하와가 너희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힘을 가지고 도전하라 함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깨닫지 못해요. 기도만 하면.
"나 휴거됐죠?안 됐죠? 안 됐을 거에요. 좀 가르쳐주세요." 이 답을 못 받아요. <인식>을 바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 휴거 300선까지는 성자와 구원자가 총집중해서 도와줬다고 했는데, 아~수료하고 나서도 3년 동안은 전적으로 관리하고 키워주듯이 이렇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주셨구나.'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바로 하고 기도할 때 자기 영이 휴거됐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혹은 나는 그것마저도 믿지 못하고 휴거에 대한 확신을 못했으니 나는 이제부터 휴거에 대한 확신, 휴거말씀 먼저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알면! 사탄이 멸해져요. 알면! 선과 악이 쪼개집니다!
그 때부터는 선으로 향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냥 기도만 하면 깨닫지 못하니까, 인식을 바로 하고 기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인식>을 바로 하게 됩니다. 고로 자기 영이 휴거됐는지 기도할 때에 거의 다 알게 됩니다.
<300선 이상>부터는 사실 쉽습니다. <300선>까지가 그리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성자는 지상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총력을 기울이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비밀들을 떼어서 부인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성령도 강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 기간에 시대 구원자는 시대의 모든 십자가를 지고 환란 속에서도 어려움속에서도 말씀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펜끝으로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인식을 다 돌려놓습니다.
<휴거 300선>까지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이상부터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제대로 하고 알 것을 제대로 확실히 알고 행하면 쑥쑥 차원을 높여요. 그래서 시대대표를 제대로 알고, 신부대표를 제대로 알고, 그로 인해 한 지체인 자신에 대해서도 깨달으라 함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 300선까지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구원자가 총력을 다해서 왠만하면 거의 다 휴거를 시켜주었습니다.
성자와 구원자와 휴거 말씀과 휴거를 믿고 시인하며
자기가 휴거되기를 원해서 행한 자들은
웬만하면 <300선>이 됐습니다.
섭리사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부모가 엄청

나게 악평을하면서 교회에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녀가 그리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러다 깨닫고, 그 악평하던 부모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그동안 몰랐다. 나도 그 좋은 세계, 황금으로 된 세계에 좀 가고 싶다. 이제는 정말 믿겠다.” 하고 시인하고 고백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성자와 분체는 그 부모도 ‘자신의 신부’로 인정하고 휴거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믿고 따르고 애원하며 휴거되기를 원해서 본인이 부족하지만 행한 여러분들을 휴거시키지 않겠습니까?
★ <휴거 300선>만 되면, ‘자기 휴거’는 절대 안 버립니다. 휴거 300선이 됐는데 절대 다른 길로 가지는 않아요. 아까워가지구. 왜냐하면 다른 길로 가는 것보다 휴거 700선으로 가는길이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그 길로 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의 도전보다 휴거 700선으로 도전하게 되겠죠.
고로 자기가 휴거됐다는 것을 알고 시인하면, 계속 힘을 내서 400선, 500선 이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가려고 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인하는 자마다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인도하리라 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말씀>을 시인해야 되요. <하나님이 대표와 함께 행해서 승리한 섭리역사>를 시인해야 됩니다.
 휴거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요. 그러면 자기 발로도 휴거 700선까지 능히 갈 수 있습니다.
★ 이제부터는 성자가 지상에 계시지 않아도 휴거된 자들이 분체와 딱 일체되어서 시대말씀을 전하면 이 지구세상에 있는 자들을 휴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거됐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는 ‘절대 감사, 기쁨’입니다. 기도하고 시대 복음을 강력히 전하며 전도하면서,
 <결혼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된 자의 삶, 신부의 삶’입니다.
★ 수료한 후부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듯이, 휴거된 후부터는 휴거의 확신을 가지고 휴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곤고함을 면하고, 사탄이 틈을 타지 않으며, 다음 단계로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거’를 절대시하면서, 육신으로 오는 유혹을 다 이겨야 합니다.
 <휴거>를 절대시하고, ‘육신으로 오는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나 휴거됐으니 이러면 안 돼.’
이성과 세상 사랑을 이기고, 멀리하며, 육에 속한 것들을 이겨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반대자 악평자를 100% 이겨야 됩니다. 사탄, 악평자들은 하나님과 성자와 구원자의 원수입니다. 천적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일.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고로 그들의 말은 100% 불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가운데, 여러분의 구원에, 휴거에, 축복에 단 한마디도 단 일퍼센트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있는데요. 음식에 벌레가 앉았어요. 그냥 먹겠습니까. 더러워서 싹 잘라내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1%도 소용이 없어요. 단 한마디도 악한 자의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 불신입니다. 음식에 벌레 앉은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과 악평자들, 하나님과 성자와 구원자의 원수, 그들의 말을 100% 불신하고 강력한 말씀과 기도로 먼저 쏴버리기 바랍니다.
사탄에게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사탄은 낙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믿지 못하게 합니다.
휴거됐으니까, <휴거의 확신>을 가지고 <휴거>로 이겨야 됩니다. 성자 사랑, 주 사랑, 단상의 말씀, 교육 말씀, 그리고 기도는 사탄과 악한 자들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주님의교회도 4년정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전세계적으로 많이 뛸려고 하다가 악한 자들을 이기는 무기는 단상의 말씀, 기도, 그리고 교육말씀이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끈을 놓지 말고 이제는 많이 해줬으니까 10분씩이라도 교육해주면서 단상말씀을 강하게 전해주면서 사탄을 무찌르자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자 사랑, 주 사랑, 단상 말씀, 그리고 교육 말씀, 기도! 이것으로 <휴거>되는 데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양념은 필요없습니다. <휴거의 차원>을 높이는 데 충분합니다. <사도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충분합니다. 다른 교파의 말씀, 악평자의 이론은 단 한 마디도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데 벌레가 단 한 마리도 필요없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데 먼지 한 줌이 필요 없습니다. 먼지 한 큰 술을 넣겠습니까. 혹은 배설물 한 큰술을 넣겠습니까. 맛이 더 좋아져요? 혹은 썩은 재료 한 큰술?
 악한 자의 이론, 다른 교파의 말은 단 한마디도 필요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까지 완벽한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휴거를 방해하는 말>일 뿐이고 이 말은 절대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옆에 있는 자들이라도 ‘어, 나를 쏘는 벌들이구나. 그러면 내가 휴거를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시대말씀을 강하게 시인해야지.’ 그러면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탄. 휴거를 최고로 막습니다. 휴거를 흐릿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점점 잊게 하고 행치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영원한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면서 아주 강력한 힘과 불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극성을 부리게 되죠. 기승을 부립니다.

<휴거>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전히 이루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 휴거 이것을 핵심 총집중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구원자'가 희생했죠. 그리고 용서했죠. 웬만하면 거의 다 휴거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본인이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좀 내야 되요. 그리고 본인이 <700선>까지 오르면 됩니다.
열심히 뛰다보면 신앙의 몸살이 납니다. 다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힘을내어 말씀을 들어줘야 됩니다. 기도해줘야 합니다.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호흡이고 극약처방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몸살이나서 말씀듣기싫고 기도하기 싫어도 무조건 말씀듣고 힘을 내야 700선까지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휴거>는 '육'을 통해서 하죠. 영이 혼자 변화되는게 아니라 육신의 행위, 우리의 모든 행위를 먹고 영이 변화가 됩니다. 나무에 영양분을 주면 나무만 영양분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열게 되듯이, 육의 행위를 통해 영이 휴거되죠. 그래서 사탄과 인사탄은 이 육신을 곤고하게 해요, 특히 휴거 300선이 됐다면 그 영을 사탄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해요? 육신을 건드립니다. 곤고하게 합니다. 방해하고, 힘들게 하며, 걱정하게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하면서 계속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이 휴거됐다는 것을 모르면 힘을 잃고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잖아요.
사탄은 자기 영이 휴거된 것을 모르는 자에게 가서 "너는 휴거 안 됐어." 하면서 낙심케 하고 자신 없게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신부들이죠. 그리고 자기 영이 휴거됐는데도 자기 육이 그것을 모르니까 사탄은 계속 그것을 이용해서 간교하게 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신부들을 자꾸 괴롭힙니다. 고로 사탄의 꾐과 거짓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사탄을 쫓아내라고 오늘 비밀의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하면 물러가고,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하면 물러갑니다. 이제부터는 휴거 300선을 기본으로 해서 휴거의 확신을 가지는 것, 그리고 강력한 기도, 강력한 말씀, 성자와 주 사랑을 무기로 삼고, 날마다 기뻐하면서 부지런히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운명이 좌우되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 기본이에요. 기본.
얼마나 말씀을 인정하느냐.
얼마나 승리한 섭리역사를 인정하느냐.
얼마나 휴거를 시인하느냐.
얼마나 뜻있게 공적을 쌓고
얼마나 삼위와 주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휴거 400선, 500선으로 쑥쑥 올라갑니다. 자기 발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이 남아있습니다. 고로 개인의 환란이 오지 않도록, 말씀을 휴거를 시인하도록 섭리역사를 시인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총명하게 해주며, 주님의 생각으로 전환하게 해주며, 말씀이 깊이 들리게 해주며, 주를 더욱더 인정하게 해줍니다.
이제 <휴거 300선>이 된 자들은 신부로서 성자를 모시고 주와 일체 되어 책임을 지고서 '휴거의 삶,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왜요? 비가 안와요, 한국에. 가뭄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죠. 메르스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그런데 섭리사에 사는 사람들만 메르스에서 보호해준다. 보호막이 딱 거기만 떨어져서 보호해준다? 있을 수 없습니다. 순리가 아닙니다.
가뭄이 일어났는데 섭리사 사람들 논에만 막 비가와요. 거기만 비가 내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술방망이 똑 내려치듯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순리적으로. 그러니 어떻게 하시냐. 의인이 기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이 가뭄이 멈추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게요."하면은 거기서 의인은 기도로 악을 멸하고 또 민족의 환란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사가 성경역사, 구원역사 6000년동안 이루어져왔고 섭리역사 37년동안 이루어져온 역사입니다. 잘하는 자들로 인해서 못하는 자들이 혜택을 받고, 의인으로 인해서 시대 전체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고로 기도하라. 연결되어 있으니까. 시대 민족적인 환란과 어려움은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자 본체>는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그 육인 구원자'와 일체 되어서 그를 쓰고 땅에서도 우리와 같이 사십니다.
<성자의 육>, 곧 <시대 구원자>는 '육신'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성자가 보낸 자입니다. 그가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 이루시죠. 고로 '보이는 성자'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는 성자와 함께 땅에서 함께 사는 때입니다. 이제 남은 때가 남아있어요. 성자는 떠나셨지만 천국에 계시면서 여전히 그 육신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는 살아서 역사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이룰 것입니다. 이 기간에 빨리 600선, 700선까지 올라야 됩니다!!
아, 그럼 앞으로 구원자가 살아있는 기간은 좀 남았고 그는 오래 사시니까. 그러니 말합니다.

정한 때가 되면 선생도 가야하고, 또한 나이가 더 들게 되면 해가 지듯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교역자들에게 이 단상을 맡기게 됩니다. 지금 거의 100%죠. 98%이상 이 단상을 구원자가 신경쓸 때, 그리고 책임을 지고 있을 때, 바로 이 때. 이 때 해야 됩니다. 이 때 700선까지 해놓고 그 때 푸념을 하든, 낙심을 하든 하라는 거에요. 그때는 구원자가 살아있는 휴거기간이라도 <휴거>가 매우 약해집니다. 지금, 지금, 지금! 해야 됩니다. 육신은 못 보지만 엄연히 육신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육신을 직접 못 보니까 말씀으로 혼으로 모든 기도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더 섭리사에 폭풍우같은 역사를 일으켜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구원자의 육신이 살아 있는 때'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마지막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회의 때, 2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남은 때를 우리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 한때. 구원자는 성약 천 년 기간동안에 핵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기간 중에서도 최고로 역사를 일으켜 주는 그 때가 가장 좋은 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 잠시 한 때를 생각하면서 이때 부지런히 미련도 후회도 없이 행하며, 외치며, 증거하며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형제와의 불화, 그리고 조금 작은 어떤 일들. 선생님께 편지가 안 왔어, 낙심돼. 아~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사탄을 멸해야 되요. 이것이 중심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굳건히 기도하며, 강력히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강철과같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강력히 기도하고, 강력히 말씀을 전하면서, 강력히 행하면서 남은 것들을 일단 이뤄야 됩니다. 본인이 하면 성자도 보이는 육을 쓰고 그와 함께 돕고 역사를 해주십니다. 휴거됐으면 이제 결혼한 격입니다. 결혼 전에는 특징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엄청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먼저 사랑하고 모셔 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계속 남자한테 여자가 바란다면 남자한테 소박을 받습니다. 남자의 마음이 딴데로 흐르게 되겠죠. 결혼한 후부터는 여자가 남자를 모시고 섬기고 사랑해 주면서 본인 책임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휴거됐죠? 결혼했으면 이제 신랑인 성자와 그 보이는 육을 신부입장으로 모시고 섬겨주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부터 <휴거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휴거에 대한 귀한 핵심'을 가르쳐 줬으니, 모두 감사하며 강력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휴거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어떻게 된건지 인식을 하고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야합니다.'

인식하면 달라져요.

<휴거의 확신>를 확신하고 그 다음부터 생각, 행동 모든 것을 조심하면서 휴거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앞으로의 목적입니다.

승리한 섭리역사에 이어서 하와 표상 말씀, 꼭 알아야 되는 말씀에 이어 핵심을 가르쳐줬으니 감사하면서 강력히 기도해야 됩니다.

<휴거는 이론이 아닌 실제>라는 것을 믿고, 매일 <휴거의 노래>를 부르며 <휴거>를 대(大)소망으로 삼고 살기 바랍니다. 그래야 꿈에서도 정확하게 자기 상태를 보여 줍니다. "나는 휴거 안 됐다." 인식하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휴거됐다." 하고 인식이 안 됩니다.

계시, 감동, 느낌은 '자기 인식'대로 온다고 했죠.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깨달음이 제대로 안 온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그릇된 인식은 본인이 못 풉니다.
아는 자가 주인이 풀어줘야 됩니다.

고로 오늘 '그릇된 인식에 매인 것'을 사명자와 성자가 확실히 가르쳐 주며 말씀해 줬으니, 그릇된 인식을 싹 다 빼내고 반대자와 악평자와 다른 교파의 말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늘 전해 준 생명의 말씀만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시도, 감동도, 느낌도 다시 오게 됩니다.

원래 휴거됐다는 것을 알려 주면 마음이 해이해지니까 절대 안 알려줬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휴거를 왠만하면 확신하게 되겠죠. 가르쳐주면 헤이하고, 안 가르쳐주면 낙심하고 도대체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되.

감동받거나 불받거나 낙심하거나. 중간이 없어요.

섭리사 시대 구원자는 거의 말씀하는 쪽을 택해서 여러분을 이기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휴거 300선이니 이제 좀 쉴까? 이것 역시 사탄이 침범한 생각입니다. 목적은 휴거 700선입니다.

휴거 300선, 400선, 500선 그 사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고 그 선에서 머무르는 것보다, 혹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휴거 700선으로 가는 길이 훨씬 빠른 길임을 깨닫고 도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신부들을 이용하면서 낙심하게 하고 힘을 잃게 만드니, <휴거의 확신>을 가지고 <강력한 기도>를 해서 사탄을 쫓아내고 고통을 벗어나라고 오늘 이와같은 비밀을 말씀해 줬습니다.

사탄은 그릇된 인식관을 가지고 괴롭히죠. 걱정, 근심, 염려, 고통, 곤고함은 인식을 제대로 하는 즉시 없어지게 됩니다. 사탄. 사기꾼입니다. 인류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역사적인 사기꾼입니다. 늘 공포를 주며 불안함을 줍니다. 오늘 말씀대로 모르면 사탄과 인사탄이 괴롭히고,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것

입니다.
<아는 것>이 '빛'이에요. 어둠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로 우리가 제대로 확실히 알면 어둠은 즉시 물러갑니다.
이제부터는 <휴거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강력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여 시대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휴거 700선까지 오르고, '휴거 700선에 오르는 생명들'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침기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경에 마지막 예언인 이 휴거로 창조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진행하시는 삼위일체를 시인하고 인정하며, 그가 보내신 구원자를 시인하고 인정하며, 그 입을 통해 나온 시대말씀과 휴거의 말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모든 핵심은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며 온전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온전한 판단을 하게 하시면서, 시대말씀을 알아보게 하시고, 시대 구원자를 알아보게 하십니다. 고로 이 생각에 악한 것을 쪼개내어서 시대 말씀을 믿고 구원자를 믿으며 삼위일체역사를 믿는 자는 얼마나 행복하며 그리고 얼마나 기쁜 삶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와 환란, 이 시대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이 터전위에서 우리의 아주 소수 이들을 신부로 만드시고자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더 나아가 휴거를 인정하고 시인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그릇된 인식과 세상에 절어있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 말씀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시인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자께서 애지중지 강력히 역사하시며, 그 보낸자를 통해 나타나 인도해주시며, 시대 십자가를 지어주시며, 값없이 용서해주시며,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며, 성령으로 강하게 불을 일으켜 역사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핵심 경기는 승리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핵심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사탄에게 당하며 남은 역사를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면 헤이헤질까봐 다 말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사탄에게 당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꺽이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대놓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하신 역사에서 다시 모든 것을 이기고 막아주기 위해 행하시고 기도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섭리역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역사인지 알고 창조목적을 알며 그리고 휴거를 알며 구원을 알며 신부 역사를 알며 사랑의 역사를 알고 이 모든 것을 확신해야만 역사가 일어남을 진실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상의 말씀은 그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며, 이 말씀을 알고 시인할 때 사탄을 멸하게 되며, 행하게 될 때 완전하게 멸하게되어 승리하는 영혼육이 되리라 믿습니다.
승리한 섭리역사를 말씀하셨고, 하와의 표상을 말씀하시며, 그리고 시대 아담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밝히며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본인의 휴거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희망이며, 영원한 소망이며 섭리역사 최고의 자부심이며 자존심인 휴거를 확신하고 시인하며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으며, 그래야만 다음 차원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터전위에 연결된 것을 하나로 보면서 성자가 남기고 간 분체와 이 마지막 최고의 때를 완전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개개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개인 환란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곤고함과 고통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신의 기도를 확신하듯 휴거를 확신하게 하시고, 구원자와 섭리역사를 더욱 확신하는 충만한 역사가 이 곳 섭리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승천 이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날마다 단상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선과 악을 쪼개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릇된 인식과 생각을 쪼개내어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듯이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이 불 하나하나가 모여서 사도역사, 성령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제2,3,4,5의 사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는 자, 깨닫는 자, 시인하며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과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봉헌기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우리의 고백과 사랑을 받아주신 성삼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과 성자는 성령님과 주와 함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영혼의 양식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근본된 아주 중심의 핵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통과 고민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학교

에, 가정에 모든 것에 우리의 육신을 쏟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운데 핵폭탄같은 중심의 말씀을 주시어서 무엇을 어떻게 분별하며 선과 악을 어떻게 판단하며 어떻게 쪼개며 갈 수 있는지 생각의 축복, 말씀의 축복, 성령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단상의 말씀의 핵을 본인의 머릿속에 꽂고 주의 돛을 달고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자께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 오늘의 말씀대로 휴거에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받기를 원하시며 지금까지 전해온 휴거의 말씀과 섭리사의 말씀과 시대의 보낸자와 삼위일체와 섭리역사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마음받기를 원하시는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드리니 받아주시옵시고 준 자에게 성령의 큰 능력과 은혜와 불과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다음단계로 가서 이 시대 최고로 승리하는 행복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표상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표상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표상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돛을 달고 행하는 자들이 표상이 아니겠습니까. 단상에 떨어지는 모든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가장 먼저 깨닫고, 가장 먼저 행할 때에 표상이 되리라 믿사오니 우리 주님의교회도 핵심은 승리했사오니 제2,3,4의 표상을 놓치지 않고 그와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생각의 축복, 행실의 축복, 휴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역사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